더 팍팍해진 세상…소통 대신 "법대로"

광주지역 고소·고발사건 한해 2만여건…대부분 불기소 처리

기소율은 20%도 안돼…"사회성 부족을 공권력에 의존" 지적

A아파트 자치회장 이모(60·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서모(63)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씨가 지난 1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 자신을 둘러싼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 방송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한자리에 불러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 화해할 것을 제안한 뒤 돌려보냈다.

툭하면 '법대로'를 외치며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웃집 개 짖는 소리나 층간 소음,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돼 경찰서를 찾는 경우도 흔하다. 양보와 타협 정신의 실종, 믿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옅어지는 사회 풍토가 만연하면서 '소송 공화국'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만5115건으로 전년도 2만2399건에 비해 12%(2716건) 증가했다. 올 9월까지 고소·고발 사건만 보더라도 1만9480건으로, 한 달 평균 2164건에 달했다.

광주시 인구가 147만 명. 100명당 1.7명이 '법대로 하자'며 고소장을 써 수사기관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반면, 재판에 넘겨지는 고소·고발 사건은 20%를 못 넘는다. 올해 기소율은 16.1%에 불과했고 지난해 19.4%, 지난 2012년에는 19.5%에 머물렀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올 들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4426건 가운데 무려 3650건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을 정도다. 고소·고발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소·고발을 했다가 뒤늦게 취하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된 건수도 745건이나 됐고 '죄가 안됨'도 31건이었다.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자'며 법의 판단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보니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규석(60)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가 변하면서 귀속된 집단, 단체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는 개인이 늘고, 상대방을 대하는 사회성이 부족해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피해의식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51 해짐 17:41 달뜸 12:26 달짐 23:18

흐린 가을 하늘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늦은 밤에 전남 서해안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10/21	보 성	흐림	7/19
목 포	흐린뒤비	11/19	순 천	흐림	10/20
여 수	흐림	14/19	영 광	흐린뒤비	10/21
나 주	흐림	9/21	진 도	흐림	9/19
완 도	흐림	12/20	전 주	흐림	9/21
구 례	흐림	6/20	군 산	흐림	8/20
강 진	흐림	9/20	남 원	흐림	7/20
해 남	흐림	8/20	흑산도	흐린뒤비	15/19
장 성	흐림	8/2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	동~남동	0.5~0.5
	먼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0.5	북동~동	0.5~0.5
	먼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08	11:15
	18:54	23:09
여수	00:38	06:36
	13:27	19:51

◇생활지수

식중독	45
운동	60
빨래	70

◇주간 날씨

31(금)	11/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13/18	16/19	14/17	8/14	6/17	7/18	8/19

다문화 가정 5쌍 합동 결혼

29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서 다문화가정 5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5회째를 맞는 이번 결혼식은 광주시 동구청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전액후원해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5쌍의 부부가 200여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화촉을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고지서' 발부

내년부터 학교주관 구매

내년부터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 배정 직후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교복 대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보완사항을 29일 발표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주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국·공립학교는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의무화되고, 사립학교는 권장된다.

교육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교복 대금 고지서의 발부 시기를 고등학교는 등록금 고지서 발부 때로, 무상교육인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로 못박았다.

단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장터에서 사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본교의 교복 디자인과 교표를 디자인 등록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시·도교육청의 교복 표준 디자인과 신설 학교의 교복은 디자인 등록을 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교육부는 재학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해 학교 주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 협의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재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에 교복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나주 산포 오리농장 1만6700마리 살처분

나주시는 산포면 한 오리농장에서 사육하던 오리 1만67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농장주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오리 100여마리가 폐사되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나주시에 신고했다.

나주시는 병성감정 결과, 고병원성 AI로 의심된 데다 지난 11일 오리 5000여마리가 살처분된 산포면 농가와 3㎞이내인 경계지역인 점을 감안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나주시는 현재 AI발생 경계지역 10㎞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오리 입식을 전면 금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찾아가는 기업회생 설명회

광주지법, 오늘 전남테크노파크

광주지법은 30일 오후 3시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여수·순천·광양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회생 설명회'를 연다.

법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법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임솔(파산 2단독)·김동욱(파산 4단독) 판사가 강사로 나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법인 회생 절차와 관련한 채권·채무자의 유의 사항을 설명한다.

법원은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일반 회사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거나 거래처의 회생신청으로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됐을 때 적절한 절차를 밟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는 순천상공회의소(061-741-5611)로 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